

SK그룹,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

지주회사 SK홀딩스와 자회사로 분리 ... 복잡한 지분구조 해소가 관건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향배와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는 4월11일 이사회를 열어 7월1일자로 회사를 지주회사(가칭 SK홀딩스)와 사업 자회사(SK에너지화학)로 분할해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충족기한인 2009년 6월까지 기존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가 SK에너지화학,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 E&S, SKC, SK해운, K-POWER 등 7개 주요 사업 자회사를 거느리는 수직 출자구조로 단순화된다.

또한 자회사는 각기 사업분야가 유사한 SK인천정유, 대한송유관공사, 텔링크, 텔레시스, SK가스 등 27개 회사 주식을 각각 나누어 보유하면서 손자회사로 두게 된다.

그러나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SK케미칼과, SK케미칼이 지배하고 있는 SK건설은 수직 출자구조에서 배제됐다.

SK그룹의 사촌형제간 지분 정리와 계열사 나누어맡기 구도가 그동안 예상돼왔던 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앞으로도 분할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가 채택한 분할방식은 회사 재산과 주주 보유주식의 분할을 함께 진행하는 인적분할로, SK의 기존 주주는 분할에 따라 1주당 지주회사 주식 0.29주, 사업 자회사 주식 0.71주를 분할 공급받게 된다.

SK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라는 주주들의 요구, 경영효율성 증대, 지배구조의 획기적 진보 등을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철 SK 사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전담하며 사업 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갖춰 사업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정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며 계열사 동반부실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1>